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9.3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아이슬란드, '다중이용시설' 테러공격 모의자 4명 체포
 - 9.22 아이슬란드 경찰은 의회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목표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수도 레이카비크 교외의 마을에서 30대 남성 4명을 체포하고 총기 수습 정과 탄약 수천 발을 압수
 - * 용의자들의 북유럽 극우단체와 연계가능성 등 조사를 위해 국제공조 수사 중
- 네덜란드 경찰, 벨기에 범무장관 납치 공모자 4명 체포
 - 9.26 네덜란드 경찰은 「빈센트 반 퀴켄본」 벨기에 범무장관에 대한 납치를 공모한 혐의로 자국민 4명을 체포했으며, 체포현장 인근 차량에서는 다수의 돌격소총·인화물 등이 발견되었다고 발표
 - * 벨기에 연방검찰은 네덜란드에 同人들에 대한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부언

미주

- 美, 게임 內 '극단주의 활동' 모니터링 후원
 - 9.22 美 국토안보부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인종·성소수자 등에 대한 극단적인 여론형성과 범죄·테러 실행 가능성 차단을 위해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프로젝트에 70만 달러(약 9억8천만원) 후원 예정
 - * 美 뉴욕주는 지난 5.14 버펄로에서 발생한 10대 백인 남성에 의한 총격사건 (사망 10명) 이후 게임 커뮤니티인 '디스코드'와 '트위치' 영향력에 대해 조사
- 美 경찰, 역대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 '모방범죄' 용의자 체포
 - 9.26 언론은 캘리포니아주 경찰이 美 최악의 총기 참사로 꼽히는 '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*'을 모방한 범죄계획 정보를 사전 입수, 살해 협박 등 혐의로 「델러스 마시(男, 37세)」를 체포했다고 보도
 - * '17.10월 음악 콘서트장 옆 호텔 32층에서 공연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60명 사망·411명 부상, 당시 총격범의 사망으로 현재까지 범행동기 미상

아 · 태평양

- 中, 아프간 內 무장단체 활동 이유로 대규모 투자 보류
 - 9.26 언론은 중국이 아프간 內 위구르족 무장단체 ‘東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(ETIM)*’의 지속적인 활동을 이유로 탈레반과 약속했던 광물 개발 등 투자를 보류함에 따라 양국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
 - * 지난 20년간 美軍과 NATO軍에게 맞서 탈레반과 함께 싸운 동맹으로 추정되며,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을 주장
- 국회, 서울 ‘미승인 드론 비행’ 실효적 예방대책 주문
 - 국회(오영환 의원)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‘비행제한(금지)구역*’임에도 지난 5~8월까지 4개월간에만 미승인 드론 비행 75건(용산 34건)이 적발되었다며, 실효적 예방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
 - * 서울 대부분 지역은 ‘비행제한구역’(허가 받아 비행 가능)이며, 용산 대통령 집무실· 관저 주변 3.7km 및 서초동 사저 주변 1.85km는 ‘비행금지구역’(제한적 허가) 설정

중 동

- 이란, ‘히잡 미착용 여성’ 의문사 사태 정권퇴진 시위로 확산
 - 9.26 언론은 16일 히잡 미착용 여성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시위가 이란 80여개 지역에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쏘 세계에서 항의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고 보도
 - * 한국·그리스·튀르키예·미국 등에서 ‘이란의 자유’를 외치는 항의 집회 개최

아프리카

- 소말리아, 軍모병소 자살 폭탄공격으로 15명 사망
 - 9.25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市 소재 軍 모병사무소에서 입대 지원자로 위장한 용의자가 자살 폭탄공격을 감행하여 15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당했으며, 알샤바브는 同 공격의 배후를 자처

나이지리아, 주지사 호송단 겨냥 테러

- '20년 9월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바가 지역에서 ISWAP (ISIS 西아프리카 지부) 조직원 수십명이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채 「줄룸」 주지사의 호송단을 두 차례 공격하여 30명 사망, 수십명 부상
 - 9.25 최초 공격 시 테러범들은 장갑차를 선두로 6대의 SUV차량을 동원하여 호송단을 포위하였으나 주지사를 살해하는데 실패
 - 9.27 사건을 수습한 주지사가 주도로 복귀하는 경로에 폭탄을 두른 당나귀를 접근시켜 주의를 분산시킨 뒤, 기관총 등으로 호송단 再공격
- 한편, 테러에서 살아남은 「줄룸」 주지사는 보코하람 등 테러세력이 약화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하며, 추가 군사작전 요구
- 同 공격을 계기로, '18년부터 실시해왔던 나이지리아 주도 MLTF (다국적군)의 보코하람·ISWAP 대상 '차드 분지 대테러작전*'의 한계 노출
 - * 각국 정부는 同 공세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자축하였음에도, 테러조직들은 세력 복원 성공

< 차드 분지 대테러작전(Chad Basin Campaign 2018-2020) >

- (의 미) '18.11월부터 나이지리아 북부 '차드 분지' 인근지역에서 보코하람·ISWAP 등의 반란·테러활동이 폭증하자,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니제르·카메룬 등 국가들이 합동으로 수행한 대테러작전
- (결 과) 공세 초기 다국적합동군은 다수의 지역을 수복하고, 테러조직원 수백 명을 사살하였으며 테러조직 간 내분발생으로 작전 성공이 기대되었으나, 대대적인 숙청 끝에 지휘체계 복원에 성공한 ISWAP가 역공을 가하여 보르노주 일대 再탈환
- (의 의)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세력확장 중인 ISIS 계열 테러조직 ISWAP 및 보코하람을 억제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하였으나, '팀북투 삼각지대' 등 핵심지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, '22년 현재 왕성하게 활동중인 ISWAP의 세력확장 조기차단 실패